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창간예수일 주간충현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은 선교주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지상명령입니다(마 28:18~20). 이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우리(엡 2:8~10)가 가장 우선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을 조금 뒤로 미루거나 아예 방관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에 소홀했던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선교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 하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제부터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인간의 흔적이 아닌,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성령의 선교가 되도록 기도와 기쁨을 놓지 마십시오. 든든한 영적 지원군이 될과 동시에 선교에 필요한 물질의 충족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는 선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선 순위에 무엇인지를 안다면 가는 선교사가 되는 일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 9:60).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설날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린도후서 2:15)**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다운 고향을 향해 가셨거나 계획 중일 것입니다. “안녕하 다녀오십시오.” 단,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엡 6:18).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홀로 믿는 분들에게 설날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음무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줄을 던져주는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마 10:34~36). 예수님을 믿지 않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날가정예배 모본(1월 18일자 (주)2총회 7면)을 가지고 예배를 드십시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엡 5:5).

2월 교회 일정

- 1월(주) 제4차 CMTC①
- 4월(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8월(주) 제4차 CMTC②
- 11월(수) 총회 교화주변 전도(여전도회, 수요1부예배 후)
- 14월(토) 총회 교화주변 전도(남전도회, 14:00)
- 20월(금)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금요찬양집회 시)
- 22월(수) 2009년 제1차 학습 및 세례식(찬양예배 사)
- 25월(수) 재의 수요일, 사순절(2.25~4.11) 특별새벽기도회 실시(4:50)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마서 1:5~7)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둘을 함께 받았다(롬 1:5).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엡 3:6~9). 그의 설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주제였다(엡 16:31~32).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항상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구약시대에는 물론이지나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어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너희도 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6). “너희도”는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다. 바울이 보지 못한 자들이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목적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 로마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심부 역시 로마에 있다. 이곳은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역지다. 이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이들에게 사신을 보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바울은 이들을 가려져 이방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롬 1:7).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딤후 1:9). 양심, 선함, 의로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되는 이 진리를 신자들은 모르고 있으며, 종교인들은 왜곡하고 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옛것의 속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시까지 하나님을 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롬 8:32). 그런데 이 진리가 왜곡될 때가 아주 많다. 결국 자기 중심적, 율법적 전통에 따라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선한 자, 착한 자, 칭찬받는 자 등 자기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은 죄로 찌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즉 “믿어 순종”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려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 때문에 인류역사에 개입하신 이 사건이 인류에게 전환점이 된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놀라운 은총이다(롬 5:8 ; 골 1:13).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시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다(골 1:26~27).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인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개입하시어 그 모든 조건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셨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한다(롬 5:5).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둘러싸고 있음이 보호하신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로마 8:35,39).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인간의 머리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

“성도”라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전통, 도덕, 율법,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자체의 의로움, 정직함 또는 선함과 성품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자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만 거룩함이 근거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이며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밝힌 후에 사도로서 축도를 한다(롬 1:7). 이 축도 안에 있는 평강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속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축도 안에 있는 함축된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롬 14:27 ; 눅 10:5).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가 세상 어둠을 가운데서 그곳에서 저들의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다. 세상 끝까지 다니며 복음만을 전파하기 원하는 바울에게는 이 사실이 어 말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 1:15). 아멘.

WONDERFUL CONVERT

⁽³²⁾Two others also, who were criminals, were being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³³⁾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the right and the other on the left. ... ⁽⁴²⁾And he was saying,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⁴³⁾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32~43)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conversions. People from all different backgrounds, rich and poor, sick and healthy, Jew and Gentile, have made the decision to receive God's gracious provision of salvation. The Bible mentions the converted, like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Jn. 4), the apostle Paul (Acts 9), the man born blind (Jn. 9), Cornelius and his whole family (Acts 10), and many others. Perhaps the most difficult and most remarkable conversion is the thief on the cross. The paths of three men met in the midst of dying on their crosses. Two of these men were completely guilty, and one was completely pure and innocent. Two of these men were paying their debts to society, but only one, Jesus Christ, was paying the debt of sin for others. Two of these men were dying in sin, and only one was dying for sinners. Of the two criminals hanging upon their crosses, one of them changed into a saint. His conversion story shows the incredible power of amazing faith. Let's look at this wonderful convert and see what makes his conversion so remarkable.

This wonderful convert was part of a remarkable prophecy. As Jesus was carrying His cross, "Two others also, who were criminals, were being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Lk. 23:32). When the men reached the crucifixion site, called the Skull, they were crucified. Jesus was placed in the middle, so that one criminal hung to His right and the other hung to His left. Isaiah had prophesied,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o whom the stroke was due? His grac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yet He was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there any deceit in His mouth" (Is. 53:8-9).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ppressed God's truth, Pilate's judgment led Jesus to the cross, and the Jewish people had no idea that Jesus was dying for them. Also, Jesus' body was allocated for burial with others who had died on the cross, but a rich man named Joseph of Arimathea got permission from Pilate to bury Him in his gravesite (Jn. 19:38). Jesus fulfilled many Old Testament prophecies, some converged at the cross, during His earthly life. There are still prophecies to be fulfilled, and believers take heart in their fulfillment based upon those already filled. Most assuredly, the convert was unaware of Jesus fulfilling prophecy, but nonetheless he was an eyewitness.

This wonderful convert made a remarkable prayer. As the other criminal was hurling abuse at Jesus, he rebuked him and said, "Do

you not even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And we indeed are suffering justly, for we are receiving what we deserve for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Lk. 23:40-41). The convert admitted his guilt. This thief realized he was a sinner and saw justice in his punishment. He asked Jesus,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Lk. 23:42). He proclaimed the righteousness of Christ. He had never seen a miracle by Jesus, nor witnessed His preaching and teaching. There were many Jews, Pharisees, and scribes who saw Jesus' miracles but they did not believe in Him. As a matter of fact, they were the ones who wanted him killed. Yet, this thief confessed Jesus as Lord. He didn't ask Jesus to help him escape his cross. He didn't ask Jesus to help relieve his current pain. This man asked Jesus to remember him in the future when Jesus comes into His kingdom. He believed that Jesus would establish His kingdom. This man looked at the crucified Jesus, not the glorified Jesus. He saw Jesus with no power, bleeding and dying, and still saw His King. Isn't his prayer a remarkable prayer? The other thief, like most people, didn't think Jesus could save anyone. Jesus saved the man who confessed and changed him.

This wonderful convert received a remarkable promise. Jesus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How can it be? All his life this thief did nothing good. He was being justly hung for doing bad things, but he looked at the crucified Lord and really prayed and believed. His heart really wanted Jesus to remember him, and Jesus did. Jesus told him, 'today!' On the cross, Jesus made only one promise and that promise was for this thief. Jesus' promise let believers know that salvation by faith alone assures heaven immediately following death. Jesus said today!

Oh sinners, never give up. The thief who believed in Jesus is one of the biggest evidences of opportunity.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sinner you are, If you confess Jesus Christ with faith you will be saved. Please don't wait. Please don't rely on appearances or how things seem to be in this world, like the thief who cursed Jesus, for to him it appeared that Jesus was defeated, when in reality He was at the threshold of the greatest victory of all time. Please don't give up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change. Jesus is the Lord, Savior, and Redeemer of God's children. If you want to be counted as a child of God and receive eternal life, then put your trust in Jesus. No one is promised tomorrow, so take advantage of today. Amen. 

놀라운 회심자

⁽³²⁾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⁴²⁾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2~43)



김성완 목사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요 4장), 사도 바울(행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요 9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행 10장) 등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극적인 회심은 아마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일 것입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의 죽을 한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이들 중에 두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었고, 한 사람은 흠 없고 순결한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받고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야기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회심을 살펴보면 무엇이 그의 회심을 그토록 놀라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의 회개는 이미 예언되었다

이 놀라운 회심자는 놀라게도 예언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갔습니다"(눅 23:32).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있었고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곤곡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활과 함께 있었도다"(사 53:8-9).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기로 되어 있었지만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자신의 무덤에 두었습니다(요 19:38).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구약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그 일부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을 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머지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회심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도는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

이 놀라운 회심자는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강도가 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자 그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눅 23:40~41).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다른 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을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았다

이 놀라운 회심자는 놀라운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강도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강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통해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이 죽음 후 즉시 천국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죄인들이여,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처럼 결모습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순간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구세주, 하나님 자녀들의 구속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1. 21.)

어려운 때를 위한 설교

(시편 121:1~2)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 도전이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신자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 121:1). 산을 향해서 눈을 돌자.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2). 어려운 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편안하고 넓은 길을 약속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신다. 주님의 일(job)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시 121:3~4).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총이 아닌가!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시 121:5~6).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신다(시 121:7~8).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자(사 45:22).

눈을 들어 추수할 것을 바라보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는 눈을 들어 추수할 것을 바라본다.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거듭났다(요 4:4~26). 그녀는 물통을 버려둔 채 동토로 달려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요 4:29~30). 영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복음전파임을 가르치셨다. “너희는 너희들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회하여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영의 눈을 떠서 추수가 필요한 밭을 보아야 한다. 복음이 절실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자.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조차도 복음과 멀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 비복음적인 축복론에 열광하고 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며 믿는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복음의 증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마 13:43).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손해와 핍박으로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것이다(시 126:5~6).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 짓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기다리는 영혼들을 바라보자.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그분의 오심에 눈을 돌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였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도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눅 21:25~26).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눅 21:27).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돌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리라”(눅 21:28).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현실의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가 접하게야 할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근심과 환난은 ‘잠깐’이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벧전 1:6).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벧전 1:7).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님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다.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0~21). 현실의 어려움은 잠깐이다.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여 ‘영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매순간 솟아나는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고전 15:31), 십자가로 자신을 쳐(고전 9:27) 주님에만 순종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65

* 마크 16:7-8에 의거하여 4:48(마 23:13)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10:32~34)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막 2:20)고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외식을 강도 높게 지적하셨다. 그렇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옹호하고 해독하려고 결단하였었다(막 3:6).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낱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일개 시골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이 세뇌놓은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정의하였을 뿐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고백하셨다. 그곳에서 자신이 당할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셨다고 말한다. 자신들도 앞서 서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막 10:32).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들었는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라”(막 8:31). 그 이후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막 9:31).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보

고 놀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33~34).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매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곧 우리다. 제 아무리 대관한 신앙인이라도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죄명은 살아나 또 다시 제자들의 것들에서 사로잡히게 된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던 신약시대를 대표할 만한 선지자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비참하였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의심하였다. 결국 세례 요한도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었다.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외식적인 종교인들과 달랐지만 그도 역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전통과 문화에 갇혔던 것이다.

우리로 마찬가지로도.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며 또 다른 전통과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복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이다. 십자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자 말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반응하자(눅 9:51). 십자가에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달라.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배로우신 나의 주”(한 148장). 세상의 것들로 굳어진 나의 모든 것들이 깨져 재(ash)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자. “주여, 내 삶에 십자가만 커지게 하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아멘.

기대와 설렘으로

맨 처음 성경학교를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였다. 주일예배 때는 제한된 짧은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은 물론 어른인 나도 재미있어서 해마다 성경학교가 열리면 아이들보다 더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만원버스와 자유회(만원지하철)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과 교회로 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나의 아이들이 '성경학교'라는 이름 대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만큼 커버린 지금, 다시금 내게 성경학교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은 얼마부 교사로서의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풍성한 말씀과 찬양, 율동, 이야기극, 특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맡은 선생님들의 달란대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아가들과 얼마 아바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비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 성경학교가 열리는 날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 많이 올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일차를 내고 긴 길을 달려온 아바, 직장 다니는 엄마 대신 아기를 안고 오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믿지 않는 아기 엄마와 함께 나온 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된 귀한 영혼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될 수 있었다. 바쁘고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성경학교가 앞으로도 계속 되길 기도한다.

김경숙(교사, 영아부)

백적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처음 유아부에 교사로 오게 되었을 때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우리 두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며 언젠가는 나도 사랑을 받지만 말고 나누어 주어야지 생각은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전도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중 '순종'하고 '충성'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아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 내 시간과 노력 모두를 드리고 충성해야 되는데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되는 쉬운 일을 맡으려는 나의 모습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된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나의 상황과 편함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집에서 성경학교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면서 회사 발령으로 인해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남편이 두 아이들과 나를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겠다, 준비할 수 있다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렸다.

성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순서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여기에 모인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참으로 택정함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고 충성하면 참으로 기쁨이 크다는 소중한 진리를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한다.

구예진(교사, 유아부)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도와 전도를 할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문규현(유지부)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요!

겨울성경학교에서 성경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성경퀴즈로 성경 말씀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이에요. 찬송도 배워서 즐거웠고,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요. 다음 날 외할머니와 전도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에도 더 신나게 성경학교를 계속하고 싶어요!

박예린(유년부)

정말 좋은 신 예수님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였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바울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싶었다. '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예수님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다음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예수님이시다.

난 이번 성경학교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내 친구 수정이를 데리고 왔다. 수정이는 다른 애들보다 성경책을 같이 서툰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도 수정이는 조금씩 성경 찾는 연습을 했다. 성경퀴즈시간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수정이가 늦게라도 찾아내는 게 난 너무 기뻐했다. 겨울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간 후 수정이한테 전화가 왔다. "유림아, 오늘 겨울 성경학교 때 부른 302장 찬송 있잖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흥얼거려다. 나도 흥얼거리게 돼"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이 옮겨지게 되는 건가보다. 또 수정이의 기도제목은 아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난 그 기도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의 예수님은 영혼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것이다.

김유림(소년부)

정말로 난 어리석었다

세상은 참 다양하고 별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교회 또한 그러하다. 성격, 외모, 머리모양 등 그동안 나는 다양한 기준들을 무시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왔다. '이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고 믿음도 좋네! 저 사람은 험잡거리서 싫어.'라고. 나는 마치 광한 사람인 양, 하나님께 "저를 사랑해주세요.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이번 겨울수련회의 주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4)이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종이 되어야겠다 고 다짐하고 기도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한 초 조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뛰어난 기지를 발휘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그다지 신뢰하지 못했던 친구가 내놓은 해결책으로 우리 조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든지, 굉장한 소극적인 친구가 바른 말을 열심히 수행하여 조에 맡겨진 임무를 완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다못한 부흥의 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 강단 앞으로 나가는 길에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다. 평소 그리 친하지도 않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으나 공포롭게 나란히 앉아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기도 중에 주님은 내게 많은 생각을 주셨다. 내가 보기에 건성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시간에 때들고 딴지를 하여도, 분명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이다.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 한반도 제대로 전도해 보지 못했던 나와는 달리 내가 편견을 갖던 친구들이 더 많이 전도했던 것 같다. 정말로 난 어리석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리개, 어리석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했다. '진짜 주의를 종을 그날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렸으니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사용돼 달라고 고백해 왔는지,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 뵈다. 이제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겠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 6:19).

김지윤(고등부)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다리 골절상을 입어 아예 선교훈련도 받지 않고 있던 중, 같이 선교를 가지는 제의를 받았다. 처음엔 이 아픈 다리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지, 다른 팀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망설였다. 팀훈련을 받는 중에도 다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자기 부인과 절대함복의 영성훈련을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하였다. 매연과 먼지로 목이 아프고, 주변 환경은 열악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지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목신의 생각과 장애로 판단한 것을 회개하였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체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우상당지를 버리고 문설주에 쇠못으로 붙인 뱀 그림 부적을 스스로 떼어내고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영혼들을 보며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었다.

800여 명의 학생들을 운동장에 앉혀 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며 팀장님이 우리말로 기도할 때도 성령은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어 화답하도록 인도하였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심을 또 한 번 기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드렸다. 사역지를 떠나기 전 날 저녁, 숙소 근처 가게로 가 길에 어린 거지들이 잠 자려도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다. 팀원 몇 명이 그들을 질서있게 앉고 물투수로 그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 주고 복음을 전했다.

“주님,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오시니 어찌 배척할 수 있나이까?” 그들을 가슴에 포옥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조국에 가뭄과 사역을 미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은 주께서 친히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영희(권사, 8교구 연합팀)

2009년 단기선교(1)

주님의 교회와 선교

기초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 이르는 기초석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중한 기초 돌이다. 기초 돌이 놓이고 골조가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완벽한 건물의 교회에서 아름답고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은 교회는 텅 비어 있는 황폐한 빈 집과 같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는 항상 가르침과 책임이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군대와 같은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비 진리와 늘 싸워야만 한다. 진정한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한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방패와 상아벽이 되어 주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먼저 가까이서 성도들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을 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아벽이시기에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물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행 4:4~7).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전합니다!

“시온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았고 교만하였으며 자기 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 분들과 만나며 예배에도 참석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하기만 하였고 예수님은 그저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믿으니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필요와 자기를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분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서 듣는 복음은 나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았던 나를 영원한 세계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저들과 권력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산단민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천국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자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토록 부를 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회개와 함께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찬송이 납니다. 자녀들은 흑사라도 나니 많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염려하지만 칠순의 나이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지금 교회주변전도와 단기선교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천령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전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노수(은퇴안수집사, 10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9일(월)~1월 24일(토)	중동2부 2팀	임병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6일(월)~1월 31일(토)	중동2부 1팀	박원화
1월 26일(월)~1월 31일(토)	고동부 1팀	홍순길
1월 26일(월)~1월 31일(토)	고동부 2팀	채효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좋은 벗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딤후 1:8).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자(행 4:26~28).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길로 나아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죄인들이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교회의 영광은 시작될 것이다.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소멸될 때에 교회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성전의 한 지체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요 14:12). 교회는 이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회심으로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자식 지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인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되만 예수님같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꺾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행 8:4). 천국이 꺾박을 받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여”(마 5:10).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선교위원회)

십자가의 길

타협하지 맙시다!

썰날만 되면 많은 신자들이 고민을 한다. 제사때문이다. 제사(祭祀) 또는 제례(祭禮)는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먹물거리(음식)를 바쳐서 정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썰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에서는 천지신명에게 올리는 정성을 나타내며, 넓은 의미에서는 사머니즘 및 조상숭배, 자연숭배 등과 관련하여 조상이나 자연에 제물을 바치는 일반적인 의식을 가리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효사상과 연결되어 제사에 족족 정도를 철저하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나 사람은 항상 비난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라도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였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제사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홀로 믿는 불신자정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회의 선성남은 분명히 "제사를 지내면 불자로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전 10:14). 이 가르침대로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께 불렀다면 결과는 뻔하다.

최근 진보적인 기독교단체에서는 제사는 우상숭배와 별개로 말한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사 2:10; 레 26:1; 신 4:23; 고전 10:7; 살전 1:9; 례 22:15). 비록 핍박이 있고 소해를 불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대상과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전 8:4).

제사를 드려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상에 절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용히 무릎 꿇고 돌아가신 분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자. 그들을 거름기에 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 5:21).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

아침에 눈을 뜨니 새해의 밝은 해는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웃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 자신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본반공부 시간에 나의 생각보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자신이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봉사하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변화되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서 감사의 마음이 샘물처럼 넘쳐날 때, 그 사랑과 평안이 학생들에게 전파되어 학생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서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서, 항상 상냥한 미소로 애로사항을 묻고, 들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시름을 이기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학생들의 마음에 스스로 새기도록 도와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이상훈(교사, 중등2부)

♡ 새 가 족 을 완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0	신혜록	13	청년1부	131 유재희	13 장년1부	142 이시라	21	초등부	김정배(6)					
121	임베로토	25	외선부	132 김관희	2 장년1부	143 니더라	18	중등2부	문현복(17)					
122	구본산	9	장년1부	133 이현미	2 장년1부	144 이예은	8	대학부	윤지옥(6)					
123	김복천	17	유년부	이홍선(17)	134 강종연	2	중등1부	145 유종식	25	청년4부	박부미(23)			
124	김동후	3	장년2부	김종민(17)	135 홍석산	2	소망부	146 김희정	18	청년1부	김영숙(18)			
125	김화라	13	청년1부	김영숙(2)	136 한규민	2	소망부	147 성영숙	25	예배다부	주순희(3)			
126	장근호	17	소망부	이성숙(17)	137 김규학	16	청년2부	백재복(14)	148 이강훈	11	청년2부	최광민(20)		
127	문다현	19	청년1부	김정민(19)	138 김종우	6	유년부	김정숙(18)	149 김미정	18	고등부	이혜숙(18)		
128	목대상	21	청년2부		139 장은성	7	소망부	최종민(5)	150 리만식	1	청년2부	윤해근(19)		
129	김빛바	17	고등부	김유경(16)	140 최우정	11	장년1부	장세복(12)						
130	정진화	15	청년4부	정윤화(15)	141 최희환	11	장년1부	이상범(12)						

* 중등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정치기칼럼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은
종 되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횃불을 들고 마을 교회에 가서 재미있는 동방박사 성극을 보고 빵과 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후 대학부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롬 1:16~17)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나뉘며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며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것 또한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진정한 복음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사실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내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연약한 육체는 날마다 죽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남는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욕심과 외심으로 가득 찬 곤고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부족한 이 죄인은 매일 실행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며, 참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게 된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산 몸이오니 내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 오시 는 그 날까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무능하고 약한 이 죄인에게 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작고 천한 도구로 사모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부르실지 모르으나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기를 기도 하옵 니다. 아멘.



이성성 (장로, 기도원부장)

교회소식

모임

1. 남·녀 전도와 회심 월례회
일 시: 25일(오늘) 15:10 장 소: 제1교육관 307호
2. 권사회 전체월례회
일 시: 28일(수) 12:40 장 소: 갈릴리움
3. 집사회 전체기도회
일 시: 2월 6일 금요찬양집회 후
대 상: 안수집사 전원 필참 장 소: 갈릴리움

별 세

1. 윤재홍 성도(윤 회 집사의 부친 · 이경환 안수집사의 장인, 8교구 고덕2구역) / 14일 별세, 17일 장례
2. 이영춘 성도(이순자 집사의 시모, 2교구 개나리3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3. 강기수 타고성도(강미영 집사의 부친 · 이정홍 성도의 장인, 7교구 풍납3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4. 최희배 타고성도(이인순 권사의 모친, 24교구 풍매1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2009년 겨울수련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롬 1:1~4)

부 서	일 시	장 소
외선부	1월 25일(주일)~26일(월)	아민홀
대학부	2월 3일(화)~5일(목)	충현기도원
장년부	2월 7일(토)	제1교육관 207호
청년부	2월 13일(금)~14일(토)	충현기도원
예배다부	2월 14일(토), 성안반	예배다부실

전도위원회 2008년 정기회계감사

1. 감시기간 : 2009년 1월 4일~25일까지 2. 대상기간 : 2008년 1월~12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제1교육관 404호)
4. 준비서류 : 시안표 1부, 금전출납부원장, 계정과목별대장(분개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아) 510호(베트남) 504호(네팔)

*설날연휴 관계로 이번 주 화요일(27일) 기도원집회는 쉽니다

2009년 제4차 CMTC

(교육과정: 3주간, 장소: 갈릴리움)

시 간	2월 1일(다음 주일)
18:15~19:15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제2강 총천교회 선교정책
시 간	2월 8일(주일)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제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도회

충현어린이집
교사모집

자 격 : 세례교인
정규대학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

2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요예배 (장로)					친양예배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만수읍사)	I	II
2	1	이호일	추병장	엄복삼	오순도	고계승	김영환	조연관	주승희
	8	최세진	김용기	김영남	임창식	이보신	유종식	남영선	임복재
	15	박재진	지규성	조종민	전학래	최윤덕	채홍조	김성진	박희수
	22	박성명	이상복	안석원	박덕양	최하은	전홍배	이미애	김영숙

새벽기도회 (1/26~2/1)

	1/26 (월)	1/27 (화)	1/28 (수)	1/29 (목)	1/30 (금)	1/31 (토)	2/1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박종욱	황진섭/박우현	탁정현/강만수	김철규/조영규	강명규/김해길	양태선/김정자	양재욱/김정희
설교 본문	막 10:46-52	단 3:19-30	단 4:1-18	단 4:19-27	단 4:28-37	단 5:1-12	단 5:13-31

예배 달달 (1/28~2/1)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28 수요일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롬 1:18-32) 강성관 목사	유원철	김경숙	원일인가 대 형제(여호산 찬양대)	
1/29 수요일	다른 불(레 10:1-3) 이재현 목사	최원철	안준남	하나님이 맡히신 사람들(호산 찬양대)	
1/30 금요일	강성관 목사	강호성		예루살렘 찬양대 / 만민 찬주 / 테니 이상주	
2/1 주일 I	놀라운 회심자(눅 23:32-43) 강호성 목사	강호성	이우형	(예배 전 찬양)	
2/1 주일 II	놀라운 회심자(눅 23:32-43) 김익환 목사	최성호	최병환	저변의 분향 집회 / 소프라노 조혜진(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	
2/1 주일 III	놀라운 회심자(눅 23:32-43) 강성관 목사	정진호	엄복희	구름 같은 이 세상이 / 소프라노 정희영(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	
2/1 주일 IV	놀라운 회심자(눅 23:32-43) 장 훈 목사	하종철	오세돈	나 아닌 공물을 제물로 / 소프라노 문필경(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	
2/1 주일 V	놀라운 회심자(눅 23:32-43) 박준식 목사	이광현	고재수	구주와 함께 나 있었으니 / 플루트 김하은(멜로 엑스트라)	
2/1 주일장년	교회를 세운 나(행 14:19-23) 강성관 목사	강원철	김영환	만민 찬주 / 1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영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침양예배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일양평교회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오후 1시에는 차량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아랍어) 등이 포함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In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Ⅳ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분	시 간	정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1호
강 부	오후 12:15	강 렬 힘
강 부	오후 12:00	북적거려 지하1층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주)오전8:30-오후 6:00 (관)학생 6:10~학생 9:00	신교관 1층
양육부	오후 12:10	배 다 나 흠
	오후 11:00	아 연 품
토도서점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연인이집	주2교육관	제2교육관 107호
연인교육관	주3교육관	충현북지관

1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로 1:14) 되게 하소서.
- ② 위임직사신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2:20)로 사하여 주시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을 한 뜻(골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 하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골 1:4)이 있게 하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국이 양성(딤후 2:13)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투쟁 전도(매월 둘째 주 수·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월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고, 예루살렘 장래대(마 2:36)를 통하여 금요만찬회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통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주, 현재 주를 경배 받으신 새 남십자가선 집회(유지)에 총체로 정경(골 2:15)되게 하소서.
- ⑨ 현재 진행 중인 2009년 겨울순회회를 통해서 각 교회와 학식들이 진심으로 회개(마 4:17)하여 복음으로 무장(골 2:45)되는 축복을 부여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illegible]